

국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도서관서비스를 위하여



글 | 김 호 식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회장
하상시각장애인도서관 관장
piokim@chol.com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보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및 전자책(e-book) 단말기를 통해 끊임없이 정보를 검색하여 획득하고, 필요하면 정보를 분류하여 저장장치에 담아두었다가 다시 꺼내보기도 한다. 또, 종이의 촉감이나 인쇄 잉크의 냄새가 그리울 때는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에 찾아가면 개인에게는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정도로 많은 책을 손쉽게 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이러한 정보 환경은 많은 경우 ‘그림의 떡’과 같은 얘기가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예쁘고 화려한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니 시각장애인이 화면읽기프로그램(screen reader)을 통해 소리로 읽어주는 데 제약이 많아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도 당장 읽을 수 없다. 책을 구입하거나 빌린 후 시각장애인도서관에 의뢰해서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점자도서나 음성도서로 만들어야 하며 제작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은 책을 손에 들고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독서정보접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정부차원에서가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말이다. 40여 년 전인 1960년대 후반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개인이 직접 사재를 출연하거나 혹은 뜻 있는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점자도서관을 설립했다. 이렇게 설립된 점자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빌어 점자책과 카세트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 회원들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무료 우편을 통해 집에서 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점자도서관의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였고, 도서 제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점자도서관들은 각자의 개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6년 한국점자도서관협의회를 결성하였는데,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그 시작이다.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는 전국에 40여 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기관은 시각장애인도서관은 물론 시각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회원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독서와 문화·여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통해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회원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종합목록을 발간하는 사업이다.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도서관들은 오랜 기간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점자도서와 음성도서를 조금씩 꾸준히 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10만 권이 넘는 시각장애인용 도서를 우리 회원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종

합도서목록이 없다보니 시각장애인들은 보고 싶은 책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하여 소장 여부를 확인해야만 원하는 도서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몇몇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도 통합검색이 되지 않아 여러 사이트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종합목록을 취합하여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합하여 어느 한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나머지 모든 도서관의 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시각장애인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이다. 매년 열리는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우리 협의회는 시각장애인도서관서비스분과 세션을 운영하고, 우리 협의회 주체로 전국시각장애인도서관대회도 개최함으로써 시각장

아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시각장애인 대체자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15가지로 분류하여 소개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대체자료를 좀 더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디지털·전자도서, 점자·촉각도서 그리고 음성도서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이지도서와 민간 주도로 이끌어가고 있는 전자(텍스트)도서, MP3도서의 접점을 찾는 것도 큰 과제라고 본다.

점자자료를 제작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점자의 형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점의 크기, 높이, 점 사이의 간격 그리고 제작 형태 등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점자 표준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점자(의약품, 화장품, 음료수)와 건물안내용 촉지도, 안전손잡이 등에 표기되어 있는 점자들을 점자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점자가 점자는 점자이되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점자로 만들어진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예를 들면, 점의 높이가 너무 낮아서, 점 사이의 간격이 맞지 않아서, 점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거나 작아서 등등 점자임에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는 사례들을 쉽게 발

견할 수 있다. 「한국점자규정」을 보완하고 개정에 관한 연구로 정확한 점자 표기를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저작권 적용에 관한 연구도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국내·외 유관 도서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이다. 먼저 지난 9월 24일에 개관한 국립장애인도서관과는 협치(governance)를 위한 협력과 건강한 긴장 관계를 통한 견제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회원 도서관들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각각의 관중도서관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시각장애인도서관을 견학하고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

- 넷째,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시각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할 사서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며,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다.

* * * * *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회원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독서와 문화·여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며, 장애인서비스를 담당할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해야 한다. 즉, 시각장애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가도 필요하고, 동시에 일반사서 누구나 장애인을 만나면 기초적인 응대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를 갖추도록 보수교육 혹은 특별연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서비스

에 대한 사서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서비스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점역·교정사, 음향 편집사 등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교육과정 개발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우리 협의회에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자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점자 사용 운동'을 펼치는 일, 시각장애인의 한글날인 '점자의 날'(11월 4일) 행사를 모든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기념하는 일,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높이는 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끝으로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협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 증진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대표단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정책연합을 통해 우리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가 시각장애인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전문단체로서의 명확한 자리매김을 하기위한 노력도 해나가고자 한다. ☞